

사진 : 최순녀 미카엘라(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연중 제3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8, 23ㄷ~9, 3

화답송 시편 27(26), 1, 4, 13~14 (◎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1.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2.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3.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코린토 1서 1, 10~13, 17

복음환호송 마태 4, 23 참조

◎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태오 4, 12~23

영성체송 시편 34(33),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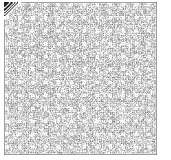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www.catholicbusan.or.kr



회개는 기쁜 소식인가?



한때는 '문제없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 못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모습을 매일 뉴스 매체를 통해 보고 듣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미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삼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의 평온이 깨지고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문제임'을 알려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거나 "괜한 트집을 잡는다."거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능치는 일은 우리에게 다반사입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는, 인생 뭐 있느냐는 생각도 그에 일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 일일이 따지고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이어서 문제 될 만한 일은 대충 치워 두고,

당장 눈에 안 보이면 그만이라 여깁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걸 문제 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 현명한 처세인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곳곳에 문제를 가리고 쌓아가면서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잊혀지고 지나갈 것이라는 텅 빈 기대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으신 후 "회개하여라."는 말씀으로 기쁜 소식의 물꼬를 트십니다. 회개는 잠시 가져보는 감정의 상태도 아니요 끝모를 자책으로 끝나는 절망의 행위도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회개

는 자신의 자리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죄, hamartia)'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찰로 시작해서 보다 나은 인간, 보다 나은 삶의 태도로 나아가려는 노력에 주어지는 빛의 은총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이 무수한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게 된 요즘, 회개란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복음) 안에 있기 위한 항구한 노력이어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여라."는 초대에 기쁘게 응답합니다.



이성균
예로니모 신부
중앙성당 주임

아파도 진실

지금까지

무엇보다 진실한 것에 가치를 두고 싶었고
또 그러하다 생각했지만
막상 누군가 내 단점을 귀띔하면 불편해집니다.
진실은 달콤한 적 없이 늘 날카롭고 서늘하여
어쩔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런 까닭에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내 문제가 되니 달라집니다.
두렵지만 사정없이 찢려서라도
서늘하게 깨어있기를
희망, 또 희망합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23(월)~24(화)
이성균 신부(중앙성당 주임)
1.25(수)~28(토)
차광준 신부(이주노동자사목)

문자참여 #2340

사랑이 있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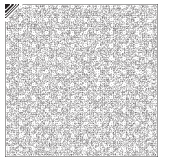
월~목 12:15~14:00
1.24(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대대성당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학생들
1.26(목) 퀴즈공트 '성경에서 온 그대'
루카복음 5장 치유 기적
출연 : 표용운 신부(명지성당 부주임)

신부들의 수다

1.28(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신부(안락 부주임), 김병희 신부(호계 보좌), 김수환 신부(청소년사목국 차장)



미사 안내를 하고 나서



박 주 영 쉐레스티노

얼마 전 몹시 추운 주일 아침, 성당 대성전 앞 현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날은 맑았지만 햇살은 헐썩했고, 가만히 있어도 칼날처럼 스치는 바람에 귀 주변이 아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교중미사 안내였습니다.

어떤 분은 종종걸음으로, 다른 분은 팔자걸음으로 성당으로 왔습니다. 무릎에 손을 짚거나 난간을 잡고 현관 앞 계단을 오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현관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족끼리, 부부나 모녀, 모자가 혹은 홀로... 그렇게 미사 참례를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툼한 외투에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한파가 몰아닥친 아침, 그런 중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너나없이 표정이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뚝

뚝한, 무뚝뚝한 표정의 분들도 계셨으니 '맑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도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보와 봉헌금 봉투 등을 건네며 나누는 인사는 정겨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주고받는 몇 마디의 말은 마음속의 한파를 녹였습니다. 성당으로 오는 분들의 걸음과 표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평화롭게 해줬습니다.

“요즘 세상은 온갖 사건과 추문, 풍문으로 참 뒤숭숭하고 우중충한데 저분들의 맑은 표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사 49, 3, 5-6)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1코린 1, 3)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 1, 29, 33)

말씀의 전례 속에서 제 마음에 꽃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사 참례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내려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세상의 빛인 줄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래저래 시끄럽고 혼란스런 요즘 같은 시대엔 그 빛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조선일보 부산취재본부장
park21@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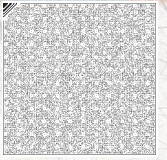
환경과 생명 생명을 위한 안식

부득이한 일이었는지 몰라도 슬픈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세간에 떠도는 말을 시체말(時體-)이라고 했던가요. 허나 이번 사태를 보고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시체말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 16일에 발생하여 올해 1월 2일 현재만으로도 달걀을 낳는 닭, 곧 산란계만도 2천2백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죽음의 웅덩이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사람의 뒤를 따라 아장아장 걸어가는 닭을 현행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시 방역 지침’ 등에 따라 CO₂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 없이 안락사(安樂死)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고통을 서서히 느껴야 하는 생매장 방식의 살처분을 강행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조류 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발생원인을 철새에게서 찾든, 공장식 사육방식에서 찾든 지금까지 달걀을 과잉

소비하는 문화는 본의 아닌 반생명적 시스템을 반복하게 합니다. A 발생 전 하루 평균 4천3백만 개에 달하던 달걀 생산량은 조류독감 발생 이후 30% 감소한 3천만 개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곧 닭은 달걀을 낳는 것이 아니라 공산품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생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달걀은 항공기로 운송한 대접을 받으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진풍경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창조하시며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 21, 25)라고 하신 하느님은 이 사태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너희는 옛세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나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탈출 23, 12)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과잉 소비문화에 젖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명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세상이 되도록 동물에도, 우리 몸에도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설 차례(茶禮) 예식



천주교 가정 제례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 가정에서는 기일 등에는 가정의 제례보다 우선하여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5조 1항 참조)

준 비

1. 마음과 몸의 준비 :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복장을 단정하게 갖춘다.
2. 상차림 :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순하게 추모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릴 수도 있다.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고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음식상을 차릴 때에는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린다.

시작 예식

성호경

시작성가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시작기도

十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 25~2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께 조상님들과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예절에 참여합니다.

(잠시 침묵 후에)

十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주님의 종()를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말씀 예절

성경 봉독

마태 5, 1~12, 요한 14, 1~14, 로마 12, 1~21, 1코린 13, 1~13, 에페 5, 6~20, 요한 15, 1~12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의 말씀

가장은 조상(고인)을 회고하면서 가훈, 가풍, 유훈 등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추모 예절

분향과 배례

가장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함께 큰절을 두 번 한다.

위령 기도

긴 위령 기도를 바치거나 노래로 부를 때에는 『상장 예식』(또는 『위령 기도』)을 참조한다. (가톨릭 기도서 P.74~79)

마침 예식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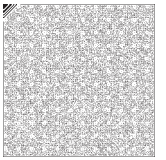
가톨릭 성가 50번, 54번, 227번, 436번, 462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성호경

음식 나눔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사랑과 친교의 대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엄마를 위한 희생



얼마 전까지 은탁 씨(가명, 28세)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꿈 많은 20대 숙녀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엄마가 아프고 나서는 자신의 삶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마(마리아, 52세)는 은탁 씨가 초등학교 때 남편과 사별 후 홀로 긴 세월 동안 은탁 씨를 키워왔습니다. 여자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씨는 새벽에는 신문배달,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식당 주방일,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은탁 씨를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씨는 2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자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3월부터 오른쪽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지내오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충수염(맹장염) 판정을 받았고, 이미 암이 온몸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은탁 씨는 엄마의 병명을 들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은탁 씨에게는 엄마는 친구이며 언니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은탁 씨는 직장 때문에 간병인을 채용하고 싶었지만 24시간을 간병해야 하기에 그 비용이 녹록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위해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의 간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인 은탁 씨가 엄마를 간호하면서 병원비는 하루하루 더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은탁 씨는 결혼 자금으로 들어 놓았던 적금을 해지하여 엄마의 병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바닥이 났고 병원으로부터 밀린 병원비 체납독촉을 받고 있으며, 1회에 200만 원이 넘는 항암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은탁 씨는 엄마의 건강이 하루 빨리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힘들고 고생 많지”라는 물음에 “아니, 늘 내 곁에 있어 줘서 고마워”라고 답하는 은탁 씨!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는 딸과 딸의 희생에 마음 아파하는 엄마의 사랑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루빨리 마리아 씨가 병마를 이기고 건강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 부산교구

지난 2016년 10월 (재민이 꿈)으로 소개된 재민이(10살)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016년 12월 30일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재민이는 일반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재민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종교를 선택할 때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자식이 잘 되기를,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이웃에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소망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주인공이 성공한 삶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우리는 해피엔딩(happy ending) 즉 희극이라고 하고, 주인공이 실패한 삶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우리는 새드엔딩(sad ending) 즉 비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의 삶, 해피엔딩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하느님의 구원역사도 드라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중 어떤 드라마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이루었으니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드라마에서는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극적인 막판 뒤집기, 반전이 숨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전 드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

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수만권의 백과사전의 고작 첫 장에 불과하다고 어느 영성 작가는 말합니다. 수만권의 장편 소설의 처음 한 장만 읽고, 주인공의 삶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는 드라마라면 더욱 그렇지요. 믿음은 자신의 인생을 넓은 시선에서, 즉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의 드라마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패는 성공이 되고, 성공은 실패가 되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입니다. ■ 권순호 신부(주례성당 주임) albkw93@hotmail.com



1월 9일(월) // 지도: 장재봉 신부, 회장: 남영자 마리아



1월 3일(화) 11:00 중앙성당 / 지도: 경훈모 신부, 회장: 김말수 소피아

교 구

선교사목국 직원 채용
 컴퓨터에 능하고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분 / 문의: 629-8720
 지원: ~1,26(목),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일 개별통보
 서류: 본당신부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2018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
 · 1,21(토)~22(일) · 감물생태학습관
 대상: 등록된 지원자만
 문의: 629-8760~2(성소국)

성소분과위원 연수(교육 및 미사)
 · 2,19(일) 10:00~16:00 / 회비: 1만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 교육관
 대상: 본당의 성소분과 위원 및 성소후원회
 신청: ~2,14(화) / 문의: 629-8760~2(성소국)

제8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3,11~4,8 매주 토 15:00~21:00 (총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접수: 1,16(월)~2,28(화), 선착순 49명
 대상: 자녀를 둔 아버지 / 문의: 010-6408-6111, 010-3460-0696(성요셉아버지학교)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1,23(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644-1729, 0272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 신심 피정
 · 1,23(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이한택 주교 / 문의: 646-3746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그레고리오성음악미사
 · 1,25(수) 19:30 · 망미성당 / 단장: 김종민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문의: 010-7339-8545(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평신도선교사회(신학원동문) 정기총회
 · 2,4(토) 16:00 총회, 17:00 파견미사, 18:00 나눔 및 식사 / 문의: 462-0334
 · 부산가톨릭대학교 내 신학원 대강당

가톨릭카우트 푸른나무대 신입대원 모집
 대상: 초2, 초5(5명 내외)
 모집: 2,1(수)~19(일) / 문의: 629-8784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음이 성령기도회
- 1,23(월) 19:30 전포성당
- 1,25(수) 20:00 울산 영성의집
- 후원회 월미사
- 1,23(월) 11:00 / 중식 제공
- 수요치유기도회
- 1,25(수) 11:00~16:00 / 점심 제공
- 교구 철야기도회
- 1,27(금) 설연휴 휴회
- 교구 성령묵상회 제423차(일반): 2,3(금) 11:00~5(일) 17:30 제424차(젊은이): 2,10(금) 19:30~12(일) 17:30
- 회비: 10만원(일반 교재비 별도 3,000원) / 당일지참 버스: 일반 10:00 / 젊음이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1,26(목) 울산 영성의집 - 설연휴 휴회

시각장애인선교회, 큰빛 직원 구함
 사회복지사, PC, 운전 가능자(일~금 근무)
 마감: 2,5(일) / 문의: 464-3909(사회복지법인 큰빛)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464-3909
 ·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박성태 신부)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계간 『부산가톨릭문학』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은 문단의 권위있는 문필가로 함.
 - 당선작은 『부산가톨릭문학』에 발표하고 신인상 수여.

■ 참고사항
 - 표지에 응모 부문, 제목, 성명(반드시 실명), 원고 끝에는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
 - 응모 원고에 대해서는 반환을 책임지지 않음.
 - 본지 출신의 작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발표기회를 부여하고 부산광역시 문인협회 회원 자격 및 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 모집부문 및 분량
 시, 시조, 동시 (10편 이상)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2편 이상)
 희곡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2편 이상)
 평론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2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3편 이상)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2편 이상)

■ 접수 마감 및 보낼 곳
 봄호 마감일: 2월 20일(월) ※ 수시 모집
 보낼 곳: gaserol@hanmail.net
 문의: 010-3845-8599

부산교구 공원묘지 하늘 공원

설날 합동 위령미사
 · 1,28(토) 11:00 · 봉안당 내 경당
 ▶ 설날 당일엔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습니다 ◀

※ 운영 시간: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p>다양한 예술과 시계 각종 보석 도매, 목주반지 전문</p> <p>서울공예사</p> <p>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 115호 (주.야)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p>	<p>분도목공소</p> <p>제대, 강론대, 장래를 등 각종 성구 제작</p> <p>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p>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형기 디지털보형기 전문 취급</p> <p>한독보청기</p> <p>김무남(아우구스터노) 632-2248, 2360</p>	<p>소중한눈 안과</p> <p>라식/라섹/백내장/노안교정/안내렌즈 대표원장 김승기(요셉), 신승혜(마리아)</p> <p>920-7788 센텀시티역 13번출구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입페리얼타워 14층</p>	<p>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p> <p>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가인방문요양센터</p> <p>만 65세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도와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모집, 교우부 우대 민 병 택(사도요한), 윤승 신(보나)</p> <p>010-7448-7858, 010-4843-3012</p>	<p>제이스 귀금속</p> <p>최신형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납성용 주얼리 전문매장</p> <p>633-4549, 634-4539 박정희(요셉), 손혜경(요세파)</p> <p>010-8661-3631, 010-3558-3630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p>	<p>갑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p> <p>김용기내과</p> <p>[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쿠나스) 의 부산대학병원 출신 전문의 7명</p> <p>www.endocrine-clinic.com 상담 및 예약 245-7100</p>	<p>활기찬 성모재활센터</p> <p>장기요양보험지정 뇌졸중 · 치매 재활전문 노인주간보호센터</p> <p>주 만 구 (스페라노) 639-1008, 010-4266-7379 남구 자성로 148, 5층(문현동) 문현역 1번 출구</p>	<p>재활전문 명품요양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p> <p>부산최초 보건복지부인증 병원 간호사 1등급, 간병사 비율 부산 최고 뇌졸중/중풍/통증/척추손상 등 전문재활치료 말기암 호스피스/내,외과계 한방협진 입원상담 동래동생령면 T. 520-7700</p>

2017학년도 부산가톨릭신학원 신입생 모집

[정규반] 2년(4학기) 주 3일(화, 수, 목)
주간: 화 11:00~17:00 / 수, 목 14:00~17:00
야간: 화, 수, 목 19:00~21:00
[심화반] 대상: 신학원 졸업생 및 수도자
: 주 1회 금 14:00~17:00
원서교부 및 접수: 2.22(수)까지(토, 일 제외)
교부: 본원양식다운 원서, 이력서(cafe.daum.net/catholic-sinhak) / 접수: 방문, 등기우편
문의: 464-7591(신학원 교무실)

2017년 세계을프레아 참가단 모집

· 4.28(금)~5.11(목) · 프랑스(루르드), 스페인(산티아고-도보1일), 포르투갈(파티마) 순례
순례경비: 385만원 / 문의: 010-3837-6434

음악교육원 오카리나 마스터클래스 개강

각 분기별 12주간씩
1분기: 2.5(화)부터 / 2분기: 5.2(화)부터
3분기: 8.1(화)부터 / 4분기: 11.7(화)부터
지도: 옥준 교수 / 문의: 517-8241, 2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에서 개인간병 하실 분
(간병경력자로서 만 60세 미만)
문의: 933-7042 010-3572-7045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463-7866

상담: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평화 여성의 전화 상담 및 쉼터

월~일(24시간) 상담 가능 / 문의: 467-7897

교육 · 모집 · 기타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3.9(화)~17(수) / 365만원, 선착순 20명
· 이스라엘 / 대한항공, 부산 출발
- 4.17(월)~29(토) / 특별가: 390만원
· 서유럽 순례(로마, 루르드, 파리, 바티)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010-3837-6434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1.24(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구속주회 신부 / 문의: 010-7132-6379

밤중 성시간

· 매주 목 23:00 · 우동성당 / 미사도구, 묵주 지참
문의: 010-7124-0721(이시찬 신부)

하느님의 자비신심 묵상회(7차)

· 3.25(토)~26(일) · 영성의 집
문의: (055)332-7004, 010-3847-2796

마리아 학교 기초 과정 수강자 모집

· 2.8~4.26 매주 수요일 14:00~17:00(12주)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6만원
(우리는행 1006-301-276411 티없으신 성심)
내용: 성경(교부, 역사, 전례) 속의 마리아, 교회
현장 8장, 참된 신심, 33일 봉헌기도
문의: 010-9620-4820, 634-4845

전교가르멜수녀회 성녀예수의데레사기도학교

· 전교가르멜청원소 / 대상: 기도를 갈망하는 신자
개강: 3.6(월) 매일 1,3주 월 10:00(오전반),
19:30(저녁반) / 2년 과정, 1학기 10만원, 면담접수
일일무료 체험과정: 2.12(일) 10:00~16:00
문의: 865-7334, 010-9479-7334

분도유치원 조리사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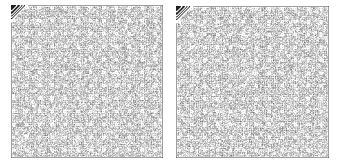
자격: 유아를 사랑하는 한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753-2136, 9

작은형제회(OFM) 겨울성소피정

일반부: 2.3(금)~5(일) 중고등부: 2.6(월)~8(수)
· 서울 평창동 OFM수도원 / 문의: 010-4592-4560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 2.11~12, 2.18~19, 2.25~26, 3.11~12,
3.18~19, 3.25~26, 4.8~9, 4.15~16, 4.22~23,
4.29~30, 6.10~11, 6.17~18, 6.24~25
토 14:00~일 16:00 / 강: 유덕현 수사신부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피정비: 5만원 / 문의: 010-2816-1986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도널드위니컷> 대상관계심리 강좌

· 3.6~5.8 매주 월요일 10:00~12:15(10주)
내용: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발달과정 I, 부모자
녀관계회복
문의: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매우터 프로그램

문의: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10~12, 3.3~5 시작 17:30
2.1~9, 2.20~24, 3.20~24, 3.20~28 시작 14:00
이나시오 영성수련: 2.3~5 시작 17:30
내적여정 에니어그램(기본 1,2과정)
: 2.10~12 시작 15:00

전진상교육관 2017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02)726-0700, 0701
홈페이지: jjsccn.or.kr 게시판 참고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 모집

1년과정(기계가공, 00명) / 대상: 만15~30세 남자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 교육비, 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검반
운영, 방통고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 면접전형
문의: (02)828-3600

인천박문초등학교 정교사 및 기간제 교사 구함

자격: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실력있는 가톨릭 신자
졸업 예정자 포함 / 문의: 010-3070-6318
(인천박문초등학교 교장 수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모 상담(국내 입양 전문)
문의: (02)764-4741~3, www.holyfac.or.kr

살레시오수녀회 중남미 성지순례 및 체험여행

· 8.1(화)~24(목) 선착순 35명
대상: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인, 가족
문의: 010-3883-7004, 다음카페 우아정 참조

<p>인간존중 생명사랑</p> <p>부산가톨릭대학교</p> <p>한국어교육센터 봄학기 수강생 모집</p> <p>■ 모 집 ■ 2월 14일(화)까지 ■ 개 강 ■ 3월 8일(수), 주 5일(월~금) 하루 4시간 수업 ■ 대 상 ■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 모 집 ■ 510-0866, yangwj@cup.ac.kr</p>	<p>부산성모병원</p> <p>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p> <p>미숙아 치료/고위험신생아 치료/갱겨루 케어 최신의 인공호흡기, 개방형 보육기 다수 보유 의사가 상주하여 미숙아 출산시 최상의 조건으로 케어 가능 문의: 933-7333(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p>	<p>가톨릭센터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p> <p>가톨릭센터 문화공연 아름다운세상 65</p> <p>김상균 라우렌시오와 함께하는 음악피정 '고백'</p> <p>수원가톨릭대 갖드증장단에서 이노주사를 거쳐 첫 독집 '고백'까지 그의 음악과 신앙의 여정.</p> <p>일시. 1/23(월) 19:30 장소. 가톨릭극장 * 무료 입장</p> <p>문의: 462-1870 / www.bcccenter.or.kr</p>
--	--	--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간병사(개인/공동)모집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재가기관(방문요양/목욕)</p> <p>성별, 학력 제한없음 818-1004, 245-1004 (주)천사사람들</p>	<p>고품격노인요양서비스 전문기관</p> <p>무지개언덕 노인전문요양센터</p> <p>입소 문의 338-5788 북구 구포3동 주민센터 옆</p>	<p>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p> <p>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p> <p>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여정호(루카), 조성락, 안서룡,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성열, 박상욱</p> <p>554-1088/동래저지철역 1번 출구 맞은편</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p> <p>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박인호(루카), 한정문 소화기 내과: 최병택, 문재현, 유찬희 류마티스 내과: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검진: 주한나</p> <p>하당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바른성모안과</p> <p>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배 드 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p> <p>242-0075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p>	<p>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p> <p>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751-1515 김병희(야네스)</p>	<p>정병래의 건강증진기</p> <p>간편한 지압식 척추 운동구 척추는 인체의 대들보 기구 위에 누워 목, 척추 지압 김 영 숙(크리스피나) 010-8312-0510</p>	<p>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자산관리</p> <p>동부증권</p> <p>개인금융 및 법인금융 탐장, 정 기 준(프란치스코) 241-5454, 010-3186-3897 센텀시티역 2번 출구</p>	<p>내일성형외과</p> <p>최수 중(루카)</p> <p>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마린병원 2층) / 서구청 옆</p>